

1990年度 아시아 電子市場 展望

編輯者 註：아시아 電子市場 展望을 1990年度 Penton Pub. 社가 發行한 「Electronics」誌 (Jan.1990) 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니 업무에 유익한 活用이 되기 바란다.

정치적 경제적 변화로 한국 대만 홍콩·싱가폴·중국 등은 전자산업 여건의 변화가 올 것이다. 저가격의 부품과 장비제조로 한 때는 유망했었지만 이들 태평양주변국들은 자본과 노동임금의 상승에 직면해 있다. 태평양주변국가들은 이윤을 내기 위해 수동부품, IC 저가격의 가전제품 등에서 ASIC 첨단제품 등으로 방향전환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이지역은 제조에서 모든 제품의 자체 디자인과 조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부품산업의 성장은 지난 해의 11%에서 1990년 2%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비분야는 보다 호전되어 143억弗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의 억압적 정권으로 성장이 위축되고 홍콩이 1997년 중국으로의 반환으로 중국에의 투자와 확대가 주춤하고 있으며, 이지역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은 최대의 라이벌인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DRAM과 같은 컴퓨터관련 부품 등의 과잉공급과 축소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과잉공급은 세계 PC시장의 약화에 기인한 것이다.

한국의 업체들은 저가격의 메모리시장의 보다 큰 점유율을 차지하여 이익금을 R&D에 투자해 왔으나 가격이 맞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DRAM바이어들은 저가격의 잇점을 보았으나 한국의 업체들은 덤핑의 조짐만 보이면 미국

의 제재조치를 면치못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장의 약세에서도 판촉 노력과 고객서비스에 역점을 두어 계속 활기를 띠고 있다. ASIC이 계속 가전제품 뿐만 아니라 데이터프로세싱과 통신응용분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첨단제품 등이 아시아지역에서 계속 생산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만은 ASIC분야에서 엔지니어링 chip fabrication, 패키징코스트가 미국이나 일본의 절반 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은 화폐의 강세와 주식의 상승으로 반도체업체들은 디자인 및 패브리케이션 장비 및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다. Gate Array는 가장 유망한 ASIC제품이며, Gate Array는 단기 전환시점으로 인해 주변기와 같은 Life Cycle 을 가진 제품에 적합하다. 대만의 ASIC매출액은 1억 2,500만弗로 지난 해보다 94%상승하였으며 올해는 1억 7,500만弗에 이를 것이다. 대만의 51개 디자인하우스 중 18개가 다국적기업의 계열이다. 기타 해외 바이어들은 주변국에서 값싼 logic 제품을 구입하게 될 것이다. 대만은 DRAM분야에서 일본과 한국대기업들과의 정면적 대결보다는 S RAM과 EPROM과 퍼스트인 퍼스트아웃(First-in First-out) 장치물과 같은 특수 메모리 제품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다.

대만업체들은 가격싸기경쟁에 버틸 자금이 부족

하기 때문이다. 대만업체는 컴퓨터산업에서 한국업체들을 앞설 수 있는 여력이 있다. ASIC제품에 힘입어 대만의 컴퓨터업체들은 세계 컴퓨터시장의 11%를 차지, 지난해 520弗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4년간에 걸쳐 점유율이 배에 이르고 있다. laser printer, 팩시밀리기기, 모뎀, 그리고 부품인 IC에서도 대만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아시아 기기 市場

	1988	1989	1990
Consumer electronics, total	3,657	3,651	3,560
TVs, VCRs, video cameras	1,952	1,909	1,859
Radios, stereos, CD players	1,242	1,261	1,208
Other	463	481	493
Communications equipment, total	2,710	2,863	3,027
Radar, navigation aids, transmitters, receivers, transceivers	539	606	644
Telephone handsets, facsimile, modems, transmission equipment	2,171	2,257	2,383
Data processing and office equipment, total	4,114	4,684	4,997
Mainframes, minicomputers, PCs	3,714	4,282	4,594
Copiers, typewriters, cash registers, calculators, word processors	400	402	403
Industrial equipment	233	245	253
Medical equipment	264	268	288
Control and instrumentation equipment	1,823	2,044	2,204
기 기 계	12,801	13,755	14,329
美 백만불			

중국에서의 성장은 둔화될 것이며, 많은 업체들이 판망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만과 홍콩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홍콩의 전자산업은 홍콩의 반환과 유동적 상황 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다. 홍콩은 560만명의 인구 중 1년에 5만명의 인구가 떠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노동력부족난을 겪고 있으며, 중국과 마찬가지로 변화를 맞고 있다.

한때 외국(offshore)이라고 함은 한국과 타이완을 말했지만 생활수준의 향상과 노동코스트의 상승으로 이들 국가들은 멕시코와 말레이시아 등으로 제조시설을 옮기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 중 특히 태국은 주변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인도도 유망한 지역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전담반도 10년안에 500억弗의 전자시장을 조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첨단제품으로의 전환을 하고 있지만 시장의 30~40%가 가전제품주도 상품에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런발판을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아시아 부품 市場

	1988	1989	1990
Discretes & optoelectronics	1,069	1,087	1,116
Digital bipolar	371	311	293
Analog bipolar	1,131	1,171	1,256
MOS logic	1,114	1,445	1,590
MOS memory	1,149	1,352	1,217
부 품 계	4,834	5,366	5,472
美 백만불			